

‘한국형우주발사체’ 2018년 시험발사

항우연 아닌 ‘개방형 사업단’ 주도... 2021년 최종 발사 사업단장 14일까지 공모... 조직·인사·예산 전권 행사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할 우주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KSLV-II)’가 2018년 시험발사를 거쳐 2021년 최종발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체계 개선 및 사업단장 선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1단계인 2014년까지는 5~10t급 액체엔진 개발과 시험설비를 구축한다. 2018년까지 2단계에서는 한국형발사체의 기본엔진인 75t급 액체엔진을 완성하고 시험

발사를 추진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이 기본엔진 4기를 묶어 300t급 1단용 엔진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까지 한국형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게 된다.

이번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가 주도한 나로호와 달리 산·학·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업단’이 주도하게 된다. 또 사업 초기(예비설계 단계)부터 기업체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할을 갖춘 기업체가 시험시설 구축이나 관련 부품개발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성광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은 “다음주부터 산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하는데, 가능한 관련된 모든 기업체를 다 끌어들이는 계획이다”며 “국가주도 사업의 특성상 그동안 우주개발에는 매칭펀드(공동 출자) 개념이 없었으나, 이제부터 매칭펀드도 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항우연의 독점 추진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역량이 제대로 결집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사업단은 항우연 내부조직 형태로 설치되나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업단장은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전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한

다. 사업단장 후보는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하며 1차 서면 및 면접평가와 2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단장을 최종 선임한다. 단계별 성과와 평가는 사업단장의 임기를 좌우한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단계별 목표관리와 중간점검도 꼼꼼히 이뤄진다.

한편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아리랑 위성과 같은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올려놓을 수 있는 3단형 우주발사체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개발 예산은 약 1조5449억원으로 나로호(5025억원)의 3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투자유치단이 지난 31일 스페인의 LED스크린 제조업체 이마고(IMAGO)사와 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스페인 LED업체와 5천만弗 투자 협정

바르셀로나와 교류 협약 체결도

광주시에 스페인 이마고(IMAGO)사로부터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투자유치단은 지난 3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적인 대형 LED 스크린 제조업체 이마고사와 5000만 달러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바르셀로나시와도 우호교류 협정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마고사는 세계 최초로 스포츠용 LED 광고기를 제작, 유럽의 축구장용 LED 광고시스템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 회사가 제작한 LED 광고시스템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세계 최고 클럽 홈구장에서 사용되

고 있다. 이마고사의 LED 광고기는 기존 제품에 비해 픽셀간격이 조밀해 고해상도의 애니메이션과 플래시, 동영상 등을 상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마고사는 세계 14개국에 생산법인 및 판매지사가 있으며, 이번 광주 투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수출용 LED 광고판을 광주에서 제작하는 것은 물론 광주를 아시아 권역 생산 및 마케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금액은 5000만 달러 규모다.

강 시장 일행은 또 바르셀로나 시청을 방문, 조르디 에레우 시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간 무역과 투자, 도시관리, 관광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우호교류 협

약을 체결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이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축구 클럽인 F.C.바르셀로나가 있으며 가우디와 피카소, 미로 등의 예술가를 배출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

강 시장은 “오늘의 우호도시교류협약을 계기로 양 시간 경제, 문화와 예술분야 교류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조르디 에레우 시장도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동의했다.

스페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1일부터 4일까지 이탈리아 파도바, 베니스, 밀라노를 방문해 투자유치 및 비엔날레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항우연 수장 놓고 14명 경쟁

발굴위, 민경주 나로센터장 등 6명 추천

나로호 발사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수장 자리를 놓고 무려 14명이 경쟁에 뛰어 들었다.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진 공석 상태가 이달 초 선임 무산으로 이미 3개월을 넘어선 데다, 또 다른 우주개발 수장 격인 ‘한국형발사체(KSLV-II) 사업단장’ 공모까지 임박한 시점이어서 항우연 원장 인선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1일 기초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항우연 원장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항우연 내부 관계자 5명, 외부 인사 9명 등 모두 1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초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이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는 원장후보심사위원회는 다음달 1일까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이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추천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산·학·연 5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항우연 원장 후보 발굴위원회(Search committee)’는 논의를 거쳐 모두 6명의 인사에게 이번 공모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발굴위 차원의 후보군에는 △조선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성철 항우연 위성연구본부장 △이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박승오 KAIST 항공우주공학전공 교수 △민경주 항우연 발사체연구본부 나로우주센터장 △정인석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부천 캠프 머서 첫 현장조사 국방부와 부천시 관계자 및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공 동조사단은 지난 31일 ‘화학물질 매몰’ 의혹이 제기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군산美기지도 고엽제 살포 의혹”

“퇴역 미군 증언했다” 시민단체 조사 촉구

경북 칠곡에 이어 전북 군산의 미공군기지에서 고엽제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사회단체가 민간단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지역 시민단체인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68년 군산의 미공군기지(캠프 울프)에서 고엽제가 살포된 사실이 한 퇴역 미군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미군의 고엽제 살포로 주한미군은 물론 군산 기지 안에서

근무한 한국군과 민간인은 물론이고 군산기지 인근 주민들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고엽제를 우리 땅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도 그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군산 미공군의 고엽제 살포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민관합동 공동조사 ▲군산기지 주변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조사 실시 ▲군산기지에서 근무한 한국군과 민간인 노무자, 군산기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시행 등을 촉구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아프간 PRT기지 또 피격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차리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탄 공격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11시27분께 로

켓포탄 1발이 차리기 기지 남쪽 외곽에 떨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명 및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포탄은 마을이 아닌 기지 뒷편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며, 현지에서 날이 밝는 대로 아프간 경찰과 협력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걸도는 지역 연구개발 사업

중앙 정부 R&D 주체 분리·현실 괴리 정책 추진

한선화 박사 지적

중앙 부처의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제 선정 및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정책 수립·심의 조정 기능 단절로 지역 연구개발(R&D)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지난 31일 전남발전연구원 주최로 동산대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산업·경제분야 전문가 워크숍’에서

“지역 R&D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의 경우 지역 R&D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나뉘져 있는데다, 지역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이 지역 R&D 사업의 문제점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양립하면서 R&D 정책 수립과 심의 조정 기능이 단절된데다, 관련 부처간 사업의

유기적 연계도 부족하고 칸막이식 예산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R&D 정책에 대한 의지도 문제삼았다.

한 박사는 “지난 2009년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과학기술 관련 예산 비중은 1.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R&D 전담 기구를 두거나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